http://dx.doi.org/10.35704/YJH.55.8

『표준국어대사전』의 프랑스어 차용어 기술 연구

하영동*

- 목 차 -

I. 서론
II. 거시구조 분석
III. 미시구조 기술의 문제점 및 해결책
IV. 결론

|국문초록|

나라와 나라 사이의 다양한 교류는 각 언어의 접촉을 동반하게 되고 그 접촉의 흔적을 상대방의 언어에 남기게 된다.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한국과 프랑스도 두 나라 사이의 지속적인 접촉의 흔적을 한국어와 프랑스어에 남기고 있다. 각각의 언어 사전은 자신의 언어에 잘 정착된 차용어들에 낱말의 지위를 부여하고 등재하게 된다. 본 연구는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술된 프랑스어 차용어를 대상으로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기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거시구조에서는 표제어의 선정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미시구조에서는 원어 정보와 뜻풀이, 순환성과 순화어 제시, 전문용어 분류의 문제점 등을 다루고 있다.

* 전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총 765개의 프랑스어 차용어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은 명사이다. 그 중에는 '모르모트'나 '아라카르트'처럼 프랑스어 의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언중들이 널리 쓰지 않는 낱말들도 등재되어 있다. 반면에 '모기지'나 '에콜', '팜므파탈'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게 되는 외래어들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미시정보 기술과 관련해서 본 연구는 차용어의 출처 언어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원어가 잘못 표기된 경우를 밝혀냈다. 그리고 뜻풀이에서는 백과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상위어의 선택과 부가정보가 잘못된 경우와 뜻풀이에 사용된 낱말들이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순환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순환성이 지켜져야 사전의 완전한 해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기술에 있어 순환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어 분류 표시와 관련해서는 분류의 원칙과 이 원칙의 일관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표준국어대사전』은 고유명사에는 언어명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책명인 '팡세'와 '페스트'에는 <프>라는 원어 표시를 하고, 같은 책명에 속하는 '디바가시옹'과 '르네'에는 원어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사전 내용의 일관성 있는 기술을 위해서는 세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사전은 내용의 정확성이 생명이다. 이용자들이 사전을 참조하는 것은 사전의 내용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그런데 한 언어의 표준을 제공하는 사전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이 말과 글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언어 사전의 재판관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사전 내용의 기술에 더 많은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차용어, 외래어, 프랑스어,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I. 서론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를 맺은 지 130년이 넘었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과 프랑스는 2015년과 2016년을 한불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서로 상대의 나라를 알리는 전시, 공연, 영화제 등 많은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한국과 프랑스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조불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1886년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두 나라가 접촉한 것은 그보다 반세기 이전이다. 1835년 서양인 사제로는 처음으로 모방(Pierre-Philibert Maubant, 1803~1839) 신부가 입국하여 선교를 시작하였고, 1855년 제천 배론에 성요셉신학교가 설립되어 다양한 서양 학문과 함께 프랑스어가 교육되기 시작하였다. 1866년의 병인박해와 병인양요를 거쳐 조선 정부가 프랑스가 요구한 천주교의 선교 허락과 교인들의 신분보호를 수용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비록 조불통상조약이 불평등조약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두 나라의 상호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었고, 조선에 프랑스 관련 학문과 지식이 활발하게 유입되게 된다.

두 나라 사이의 다양한 교류는 필연적으로 두 언어의 접촉을 동반하게 되었고 그 흔적이 각각의 언어에 남아 있다. 프랑스어에 유입된 대표적인 한국어는 한국의 화폐단위인 '원(won)'이 있다. 한국어에는 없는 성을 부여받아 남성 명사로 쓰인다. 한국어에 유입된 대표적인 프랑스어로는 '카페(café)', '바게트(baguette)', '바캉스(vacances)'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외래어 표기법 원칙에 의해 발음 표기도 바뀌었고, 프랑스어에 있는 남성과 여성, 단수와 복수의 구별도 없어졌다. 이러한 차용어는 우리말 문맥 속에서 널리 사용되고 한국어 음운에도 잘 동화된 외래어라 할 수 있다.[1] 이처럼 한국어에 잘 정착된 외

1) 차용어와 외래어를 구분하는 학자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두 용어 모두 외국어에 기원을 두고 있고

래어에 한국어 낱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국어사전에 등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국립국어원이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국』)을 보면, 한국어에 잘 정착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외래어들까지 등재된 경우가 있었다. 외래어의 표제어 선정뿐만 아니라 사전 기술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눈에 띄었다. 이에 필자는 차용어들 가운데서 우선 필자가 전공하고 있는 프랑스어만이라도 자세히 검토해보기로 했다.

본 연구는 『표국』에 기술된 프랑스어 차용어를 표본으로 삼아 표제어 선정과 미시구조 기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전은 『표국』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다른 사전도 참고할 것이다. 차용어 기술의 문제는 비단 프랑스어 차용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차용어 전체,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사전 기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Ⅱ. 거시구조 분석

1. 사전 속의 프랑스어 실태

현재 『표국』에는 총 765개의 프랑스어 차용어가 등재되어 있다. 이것은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 사이트[2]에서 원어 정보 '프'(프랑스어) 포함으로 검색한 결과이다. 이들 중에는 '가보트', '가비알', '가야르드' 등과 같이 프랑스어 단독 형태도 있지만 '고블랭직', '고쉐병',

수용언어의 언어체계에 동화가 되었다는 점에서 동의어로 간주한다.

2) http://stdweb2.korean.go.kr 2019년 현재는 사이트 주소가 http://stdict.korean.go.kr로 바뀌어 있다.

‘고전발레’, ‘그라피에시멘트’ 등과 같이 <프랑스어+한자어>나 <프랑스어+영어> 등과 같은 합성어들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어 정보가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모든 표제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프랑스어 차용어가 들어간 표제어를 품사별로 분류하면 명사가 600개, 의존 명사가 10개, 동사가 4개, 형용사가 1개이고, 나머지 146개의 표제어는 품사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 ‘파피에^콜레’나 ‘팔레^데^나시옹’ 등과 같이 두 개 이상의 낱말이 결합된 한글 맞춤법에서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 전문용어에 품사 표시가 없다. 품사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몇 개의 예를 더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고전^발레** (古典<프>ballet) [예]
- **골드^트랑슈** (gold<프>tranche) [경]
- **국제^영화^공쿠르** (國際映畫<프>concours) [연]
- **군대^폴로네즈** (軍隊<프>polonaise) [음]
- **그라피에^시멘트** (<프>grappier <영>cement) [공]
- **근대^발라드** (近代<프>ballade) [음]
- **근대^발레** (近代<프>ballet) [예]

이들 용어들은 품사 표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복합명사로 볼 수 있다. 품사 미분류 표제어를 명사로 간주한다면 차용어의 절대다수는 명사에 속한다. 차용어의 약 98%가 명사이다. 품사 분류와 관련하여 한 가지 언급할 점은 ‘데뷔하다’, ‘사보타주하다’, ‘카무플라주하다’ 등과 같이 동사로 분류된 표제어들도 차용어 원어는 명사라는 점이다. 반면에 ‘데포르메’, ‘앙코르’ 등과 같이 원어에서는 동사나 부사인 것이 명사로 분류된 것도 있다. 이와 같이 차용의 어원이 되는 언어와 수용언어의 품사는 일치하지 않

을 수 있다.

한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765개의 프랑스어 차용어에는 원칙적으로 '가르강튀아', '퐁텐블로' 등과 같은 고유명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국』은 "고유 명사는 언어명을 밝히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어이나 언어명이 밝혀지지 않은 프랑스어 또는 프랑스어와 결합된 인명,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는 1,283개이다.[3] 본고에서는 원어 표시가 된 765개의 낱말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다만 '뤽상부르궁전', '베르사유궁전' 등에는 고유명사 기술 원칙에 맞춰 원어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엘리제궁전'에는 <프> 표시를 하고 있으며, 샤토브리앙이 지은 『르네』에는 원어 표시를 하지 않고 있지만, 파스칼이 지은 『팡세』에는 <프>라는 원어 표시를 하고 있는 등 고유 명사 기술 원칙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2. 표제어의 선정

1) 표제어의 선정 기준과 문제점

일반적으로 표제어의 선정에는 사전편찬의 목적, 규모, 사전의 성격 등과 같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표국』은 한민족의 언어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오천 년 문화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편찬 목적을 위해 북한어 및 해외 한국어를 적극 수용하고, 오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사용한 모든 말을 선정한다고 밝히고 있다.[4] 이에 반해 외국에서 차용되어 국어로 사용되는 외래어의 수록 범위

3) 이것은 뜻풀이 시작문자를 '프랑스'로 하여 검색한 결과이다. 여기에는 『공간의 시학』, 『구조 인류학』, 『인간 불평등 기원론』, 『폭력론』 등과 같이 프랑스인 작가가 쓴 13개의 번역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4) 송길룡, 2003, 13쪽.

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하여 외래어 표제어들이 선정되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프랑스어 차용어 선정에 관해 논의하기 전에 일반적인 표제어 수록 범위와 선정 기준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일러두기>에 의하면 『표국』은 사전의 명칭과는 달리 표준어뿐만 아니라 북한어, 방언, 옛말을 두루 수록하였으며, 전문어와 고유 명사도 수록하였다. 전문어와 고유 명사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일부만 선별하여 수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표제어 선정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표국』이 언어사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유명사를 등재한 것이다. 사전에 고유명사 등재 여부는 사전편찬 원칙과 철학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언어사전에는 낱말을 우선적으로 등재하는 것이 기본이다. 물론 순수한 언어사전이 아니라 백과사전을 겸한다면 지식정보의 전달 차원에서 고유 명사도 등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표국』은 '머리말'에서 밝힌 것처럼 "민족 언어 자산을 /…/ 모아 놓은 우리말 사전"으로 "어문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의 국어 생활의 표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들에게 언어에 관한 표준을 제공한다면 우선적으로 언어 지식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다. 고유명사는 의미를 지니지 않은 언어외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호에 불과하다. 프랑스어 사전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유명사는 언어 사전의 기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고유명사가 보통 명사화된 것은 기술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기준을 준용한다면 '홍길동'이나 '놀부'처럼 보통 명사화되어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심술궂고 욕심 많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의미하게 될 때만 표제어로 오를 수 있다. 또는 고유명사에서 파생된 낱말이 있을 때나 '퐁텐블로(Fontainebleau)'나 '코냑(cognac)'처럼 '치즈'나 '코냑지방의 증류주' 등과 같이 고유명사가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의미할 때 사전의 기술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유 명사의 표제어 선정은 비단 『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부분의 국어사전에는 고유명사가 등재되어 있다. 고유명사의 등재는 표제어의 규모를 늘리는 데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표제어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좋은 사전은 아니다. 언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전이라야 좋은 사전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어사전이 백과사전을 겸하는 사전으로 고유명사를 등재한다면 국가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편찬하는 사전만이라도 국어 자체에 충실한 사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상규의 『둥지 밖의 언어』를 보면 사전에 실리지 못한 낱말들이 숱하게 많다. 이러한 낱말들을 사전 밖에 방치하면서 언어사전에 굳이 싣지 않아도 될 고유명사만 가득 싣는다면 국민의 국어 생활의 표준을 제공한다는 사전편찬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2) 프랑스어 차용어 선정

프랑스어에 관련된 표제어에는 원어를 밝힌 765개와 원어를 밝히지 않은 1,200여 개로 대략 2,000개 정도가 된다. 위에 언급한 기준을 삼는다면 원어를 밝히지 않은 1,200여 개의 고유명사는 표제어의 자격이 없다. 원어 표기가 된 765개의 프랑스어 차용어를 검토해보면 이런 외래어까지 사전에 실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표제어가 많다. 그 중 몇 개의 예만 들어보자.

- **모르모트**[5] (<프>marmotte) 명 '기니피그'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아라카르트** (<프>à la carte) 명 '식단에 따라서'라는 뜻으로, 음식점에서 손님이 식성에 따라 한 가지씩 마음대로 주문하는 요리를 이르는 말.

5) marmotte의 a를 왜 [ㅗ]로 표기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마르모트'로 표기하는 것이 프랑스어의 정확한 발음이라 할 수 있다.

• **에스칼로프** (<프>escalope) 명 얇게 썬 고기.

• **클라레** (<프>claret) 명 '보르도[1]'의 영어 이름.

특히 '클라레'는 선정뿐만 아니라 기술상에도 문제가 있다. 우선 '클라레'의 의미를 "'보르도[1]'의 영어 이름"이라 하였는데, 표제어 '보르도[1]'에는 다음과 같은 두 의미가 있다.

①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에서 나는 포도주. 영국에서는 '클라레(claret)'라고 한다.

② 보르도 지방에서 나는 붉은 포도주와 같은 색. 붉은 밤색이다.

'클라레'는 두 의미 중 첫 번째 의미에만 연관되며 두 번째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위와 같이 지시하면 '클라레'는 '보르도[1]' 전체와 연관된다. 따라서 지시하는 표제어가 다의어일 때는 지시를 좀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이러한 문제는 이용자가 '보르도[1]'를 찾아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다음 문제는 좀 더 심각하다. '보르도[1]'의 정의에 따르면, '클라레'는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에서 나는 포도주를 영국인들이 부르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클라레'의 정의에서도 분명히 "영어 이름"이라고 하였다. 즉 '클라레'는 프랑스어에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영어에서 차용한 것이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전인 『프랑스어 보고Trésor de la langue française』에 이 낱말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라루스 출판사의 『렉시lexis』 사전에는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데, 어원 정보란에 "고대 프랑스어 *claret*에서 차용한 영어"라고 기술되어 있다. 즉 고대 프랑스어에서 영국인들이 차용한 영어라는 것이다. 아쉐트Hachette 출판사와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가 공동으로 편찬한 『프랑스-영어 / 영어-프랑스어 사전Grand dictionnaire

Hachette Oxford, français-anglais anglais-français』에도 *claret*는 영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6] 세 번째 문제는 '클라레'의 의미 정보에 기술된 '보르도'와 관련된다. 『표국』에 '보르도'가 두 항목으로 기술되어 있다. 표제어 '보르도[2]'는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이고, 첫 번째 표제어 '보르도[1]'은 두 번째 보르도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품사가 다르기는 하지만 두 표제어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특히 외래어의 경우, 두 항목을 한 항목으로 통합 기술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라기보다는 편찬 원칙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국어사전은 기본적으로 외래어만을 기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국립국어원 누리집 '온라인 가나다'에서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 짓는 기준으로 '쓰임의 조건'과 '조화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쓰임의 조건은 "우리말 문맥 속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한 담화에 한두 번 사용되고 말거나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널리 쓰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프랑스어를 전공하였음에도 위의 낱말들을 아직까지 한국에서 사용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고, 글 속에서도 그 쓰임을 보지 못했다. 기니피그를 지금까지 그냥 '기니피그'로 불렀지 한 번도 '모르모트'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누가 일상적으로 기니피그를 '모르모트'라 하는지 모르겠다. '아라카르트', '에스칼로프', '클라레'도 마찬가지다. '보르도 산 적포도주'를 한국에서 '보르도'라 하는 것도 낯설지만 이를 영국에서 '클라레'라 하는 것까지 국어사전에 기술하는 것은 과잉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보르도'라면 몰라도 '클라레'는 외국어라 할 수 있다. '카페'나 '마담'처럼 우리말 속에 들어와 그 고유한 의미가 변화된 낱말들이나 '바게트'처럼 언중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낱말들은 마땅히 등

6) 최신 인터넷 버전에서는 프랑스어 차용어 표지가 사라졌다.

재하여야겠지만 프랑스어 의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언중들이 널리 쓰지 않는 낱말들은 굳이 등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와 반면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아래의 예처럼 아직 사전에 등재되지 못한 차용어들도 있다.

예 : 모기지, 모기지론, 역모기지, 그랑제콜, 에콜, 데뷔곡, 팜므파탈 등[7]

이런 낱말들은 종이사전뿐만 아니라 웹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지면이 한정되고 신조어들을 그때그때 곧바로 반영하기 힘든 종이사전이라면 이러한 낱말들이 실리지 않은 것이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웹 사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고 쓰게 되는 외래어는 등재하여 언중들의 언어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Ⅲ. 미시구조 기술의 문제점 및 해결책

1. 원어 표기

『표국』은 등재된 한자어와 외래어에 대해 표제어 다음에 그 원어를 한자와 로마자로 표기하여 밝히고 있다. 프랑스어 차용어들은 <프>라는 약호를 사용하여 원어의 언어명을 밝힌 다음 프랑스어 원어를 제시하고 있다.

원어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는 차용어의 출처 언어 정보가 잘못된 경우이다. 프랑스어가 원어라고 밝힌 표제어 중에서 프랑스어가 아닌 것이 있고, 이와는 반대로 프랑

7) '에콜드파리'와 '데뷔작'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스어가 아니라고 한 것 중에서 프랑스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음악 용어로 등재된 '바르소비아나 (varsoviana)'는 프랑스어로 보기 힘들다. 프랑스어의 대표적인 사전들에 이 낱말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대신 'varsovienne바르소비엔'은 등재되어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전인 『프랑스어 보고Trésor de la langue française』의 어원 설명에 따르면 1853~1854년경에 스페인의 젊은 교수가 '바르소비아나'라는 춤을 프랑스에 도입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 춤은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도입된 것으로 스페인에서 '바르소비아나'라고 부르는 것을 프랑스에서는 '바르소비엔'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스페인어 사전을 검색해 보면 스페인어에서 varsoviano의 여성형으로 varsoviana가 등재되어 있다. '바르소비아나'의 경우와는 반대로 프랑스어 원어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언어로 처리한 경우도 있다. '니코틴'이 바로 그 경우다. 이 낱말에는 원어의 언어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표국』은 "영어에서 온 외래어는 언어명을 따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니코틴'은 영어 차용어로 간주된다. 그런데 '니코틴'은 16세기 포르투갈의 프랑스 대사로 프랑스에 담배를 도입한 니코의 이름을 따서 만든 단어이다. 19세기 초 과학자들은 담배에 알칼로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1818년 담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알칼로이드를, 담배를 프랑스에 도입하고 유럽에 널리 전파한 니코의 이름에 접미사 '인 -ine'을 붙여 '니코틴'이라 하였다. 카페인이나 모르핀처럼 알칼로이드류에다 '인-ine'이라는 어미를 붙이는 것은 질소를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명명할 때 자주 쓰는 방법이다.[8] 물론 영어에서도 니코틴을 'nicotine'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낱말이 영어에서 차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니코틴'이라는 단어 자체가 담배를 도입한 사람 '니코'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니코틴'이라는 단어가 프랑스어에 있기

8) 장한업, 2004, 25~26쪽.

때문에 '니코틴'의 어원을 프랑스어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원어에 관한 두 번째 문제는 원어가 잘못 표기된 경우이다. 몇 개의 예를 보자.

- **라보엠**(<프>La Bohême)
- **레무르**(<프>lemur)
- **레종데타**(<프>raison d'Ètat)
- **바캉스**(<프>vacance)
- **에스프리누보**(<프>L'Esprit Nouveau)
- **올랭피아**(<프>L'Olympia)
- **이데올로그**(<프>idéologues)
- **플레이아드**(<프>La Pléiade)

'라보엠'과 '레무르', '레종데타'는 프랑스어 보조 기호인 악상(accent)이 잘못된 경우이다. La Bohême은 La Bohème으로, lemur는 lémur로, raison d'Ètat는 raison d'État로 표기되어야 한다. '바캉스'와 '이데올로그'는 단수와 복수 표기가 잘못되었다. '휴가'를 의미하는 바캉스는 프랑스어에서 항상 복수형으로 쓰인다. 단수형이 되면 '공백'이나 '부재'라는 의미가 된다. 이와 반대로 '이데올로그'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복수 표시 's'를 생략하고 idéologue로 표기하는 게 맞다. '에스프리누보'와 '올랭피아', '플레이아드'는 라보엠과 달리 한국어 표제어에 정관사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어 정보에서 정관사를 생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2. 뜻풀이

차용어 중에는 영어의 '보이(boy)'나 프랑스어의 '마담(madame)'처럼 원어에서 가지던 의미와 달라지는 낱말들이 있다. 우리말 속에 들어와 의미면에서 동화된 이러한 예들은 차용어의 뜻풀이가 원어의 뜻풀이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바로 이점 때문에 차용어의 뜻풀이를 검토할 때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차용어의 뜻풀이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원어의 뜻과 차용어의 뜻의 단순 비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차용어의 원래 의미와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뜻풀이가 잘못된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리세', '마롱', '테제베'를 들 수 있다.

- **리세**[2](<프>lycée) 명 프랑스의 대학 진학자를 위한 중등학교. 나폴레옹 시대에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 학교로, 고전 교양의 학습에 중점을 두며 수업 연한은 7년이다

- **마롱**[2](<프>marron) 명 마로니에의 열매. 구워 먹는 밤의 하나로 지름 6cm 정도의 공 모양이며, 가시 모양의 돌기가 있는데 안에 한두 개의 씨가 들어 있다.

- **테제베**(<프>TGV) 명 프랑스의 고속 철도. 파리에서 리옹에 이르는 426km의 동남선 외에 대서양선, 북부선도 있다. 최고 시속은 270km이며, 1981년에 운행을 시작하였다. 1994년에는 우리나라와 차량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프랑스의 중등 교육 과정은 1963년에 단행된 교육 개혁을 통해 전기 4년의 콜레주와 후기 3년의 리세 과정으로 분리되었다. 따라서 리세의 수업 연한은 3년이다. 또 리세를 '국립 또는 공립 학교'라고 했는데, 2014년 프랑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9] 1,595개의 공립 일반계 및 기술계 고등학교(lycées généraux et technologiques publics)와 901개의 직업 고등학교(lycées professionnels) 이외에도 사립 일반계 및 기술계 고등학교(lycées généraux et technologiques privés) 1,040개와 사립 직업 고등학교(lycées professionnels privés) 652개가 있다. 또한 고등학생들은 각 계열별로 대입자격고사(Baccalauréat)를 준비하거나 직업적성증서(CAP) 시험을 준비한다. '리세'를 외래어로 사용하여야 하는지도 의심스럽지만 굳이 사용한다면 "프랑스의 고등학교"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리세'에 비해 '마롱'의 뜻풀이는 더 중대한 오류를 담고 있다. 왜냐하면 마로니에의 열매인 마롱은 우리가 구워먹고, 쪄 먹고, 날로도 먹는 그런 밤이 아니기 때문이다. 『표국』은 '마롱'을 "구워 먹는 밤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어에서 '마로니에(marronier)'는 '밤나무'와 '마로니에' 두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마롱(marron)'이 밤나무의 열매로 쓰일 때는 식용이 가능하지만, 마로니에의 열매로 사용될 때는 식용이 불가능하다. 『표국』에서 '마로니에'는 프랑스어에서 후자로 쓰이는 의미만 차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10] 이 경우 '마롱'은 '마로니에'와 연관되고 식용이 불가능하다.[11] 마로니에는 가로수로 많이 이용되고,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마로니에 가로수

9) http://www.education.gouv.fr

10) 마로니에 (<프> marronnier) 명 [식물]) 칠엽수과의 낙엽 교목. 줄기는 높이가 20~25미터이고 둘레가 6미터에 이르는 것도 있다. 잎은 마주나고 장상 복엽으로 길이가 20cm 정도인데 끝이 뾰족하고 톱니가 있다. 5~6월에 흰 바탕에 붉은 무늬가 있는 종 모양의 꽃이 원추(圓錐) 화서로 핀다. 마롱이라고 하는 열매는 삭과(蒴果)로 가시가 있고 단맛이 많은 전분질이어서 식용한다. 유럽 남부가 원산지이며 세계 4대 가로수, 정원수로 세계 각지에서 재배한다.(『표국』의 '마로니에' 항목)

11) 『두산백과』에도 마롱은 독이 있어 식용할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는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5, 6월에 꽃이 피고 가을에 단풍이 들 때면 그 모습이 장관이다. 파리를 찾는 한국 관광객도 많다. 『표국』을 참조한 한국인이 파리 시내를 거닐다 길 위에 떨어진 마롱을 주어 까먹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마롱'의 의미 정보에 대한 수정이 시급한 이유이다. 참고로 프랑스어로 '샤테니에(châtaignier)'도 밤나무를 가리키며 그의 열매인 '샤테뉴(châtaigne)'는 식용이 가능하다.

'테제베'는 "프랑스의 고속 철도"로 정의되어 있는데 '철도'라기 보다는 '기차'나 '열차'라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이니셜로 이루어진 '테제베'의 '테'는 기차를 의미하는 'train'이다. 철도는 "침목 위에 철제의 궤도를 설치하고, 그 위로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 즉 기차가 지나다니는 길이다. "테제베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이다" "프랑스에 왔으니 테제베를 타야 맛이다" 등의 용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기차를 기다리고 기차를 탄다. 철도를 기다리고 철도를 타는 것이 아니다.

『표국』은 뜻풀이를 일반적으로 <정의항+부가 뜻풀이>로 나누어 하고 있는데, 부가 뜻풀이는 백과 정보이다. 언어사전의 뜻풀이는 가능하면 쉽고 간결하게 다른 낱말과의 의미적 차이만을 명시하면 충분하다. 부가 뜻풀이는 언어 사전에서는 잉여 정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제공하지 아니 한만 못하다. '테제베'의 부가 뜻풀이는 수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언급된 동남선, 대서양선, 북부선 이외에 2007년 동부선이 개통되어 시속 320km로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술과 관련된 용어들의 뜻풀이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표국』이 기본적으로 언어사전인 만큼 과감히 백과 정보를 생략하는 것도 정의의 질을 높이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차용어 중에는 '마담'처럼 우리말 속에 들어와 그 고유 의미가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고유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파생되는 것도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 '카페'를 들 수 있다. "커피나 음료, 술 또는 가벼운 서양 음식을 파는 집"이라는 의미 이외에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카페에 가입하다'등의 예에서처럼 '사람들의 모임'이나 '동호회'라는 의미가 추가되었다. 어쩌면 본래의 의미보다도 파생된 의미의 사용 빈도가 더 높을 것이다. 그런데 『표국』에는 아직 파생 의미에 대한 설명이 없다.

3. 순환성의 오류

일반적으로 언어 사전은 순환성, 즉 미시구조에 쓰인 낱말은 표제어 기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준수한다. 이 순환성이 지켜져야 이론적으로 사전의 완전한 해독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전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을 편찬할 때 표제어 선정이나 뜻풀이에 사용할 낱말과 용례의 선정이 중요하다. 『표국』을 보면 이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뜻풀이에 사용된 많은 낱말들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몇 개의 예만 들어 보자.[12]

- **레요낭양식** (<프>rayonnant樣式) [건] 13세기에서 14세기에 유행한 프랑스의 고딕 건축 양식. /…/ 방사선식의 원륜(圓輪)을 사용한 고딕 건축의 전성기 양식으로, 우아하고 환상적이다. 보베의 대성당과 트루아의 성당이 대표적이다.
- **렉시스트** (<프>Rexistes) 명[역] 드그렐(Degrelle, L.)이 이끌던 벨기에의 파시스트당.

12) 뜻풀이에 사용된 낱말 중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은 것은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 **로셸염** '타타르산 칼륨나트륨'을 달리 이르는 말. 프랑스의 지명 라로셸에서 따온 이름이다.

• **마키** (<프>maquis) 명 코르시카(Corsica) 섬의 관목림을 뜻하는 말로, /…/

• **모제르총** (<프>Mauser銃) 명 권총의 하나. 독일의 마우저(Mauser, P. P.)가 발명한 것으로, /…/

• **미스트랄**[1] (<프>mistral) 명[지] 프랑스의 론강을 따라 리옹만으로 부는 강한 북풍. 론강의 삼각 지대인 프로방스에서 불어오는 서북풍과 뒤랑스(Durance) 계곡에서 불어오는 동북풍이 합류하는 주변의 바람이 가장 강하다.

• **바로크회화** (<프>baroque繪畫) [미] 르네상스 이후 16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회화. 마니에리스모에 대립하는 카라바조의 사실주의와, 카라치의 고전주의를 주축으로 대중에게 호소하는 현실성과 감각성을 드높여 화려한 색채의 세계를 나타내었다.

• **시네마테크** (<프>cinemathéque) 명[연]영화 관련 자료실 또는 실험 영화 극장. 1936년 랑글루아(Langlois, H.)와 프랑쥐(Franju, G.)가 프랑스 파리에 설립한 세계 최대의 영화 자료실의 명칭에서 유래된 말이다.

• **퀴에티슴** (<프>quiétisme) 명[종] 인간의 능동적인 의지를 최대로 억제하고 권인적인 신의 힘에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수동적 사상. 좁은 의미로는 17세기에 에스파냐의 몰리노스(Molinos, M.) 등이 주창한 가톨릭 내의 한 사조를 이른다.

• **포퓔리슴** (<프>populisme) 명[문] 1930년대 프랑스에서 일어난 문학 운동. 정치성과 경향성을 배제하고, 민중의 생활 감정을 묘사하여 민중이 즐겨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르모니에(Lemonnier, L.)가 제창하였다.

드그렐, 라로셸, 코르시카, 마우저, 마니에르스모, 랑글루아, 프랑쥐, 몰리노스, 르모니에 등과 같은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한 뜻풀이 내에서도 어떤 것은 등재되어 있고 어떤 것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레요낭양식'에서 '트루아'는 등재된 반면 '보베'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미스트랄'에서도 '프로방스'는 있는데 '뒤랑스'는 없다. 이러한 일관성 결여는 표제어 선정이나 뜻풀이의 원칙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에 일반 고유명사를 표제어로 등재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나, 등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뜻풀이에 이용된 고유명사는 표제어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고유명사가 아닌 낱말이 누락된 것은 더 심각한 일이다. 먼저 금은 세공에 이용되는 '필리그란'의 뜻풀이를 보자.

- **필리그란** (<프>filigrance) 명[수^{3}] 금은 세공 방법의 하나. 금은을 치선상(繊線狀)이나 입상(粒狀)으로 만들어 금, 은, 유리 그릇에 융착(融着)시켜 장식한다. 고대 미술, 비잔틴 미술 따위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치선상', '융착' 두 낱말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뜻풀이에 이용된 낱말이 표제어로 없으면 이용자는 '필리그란'의 뜻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오류는 사전편찬자나 전문용어의 기술을 의뢰받은 전문가들이 표제어로 등재하기에는 너무 어렵거나 희귀한 단어를 뜻풀이에 이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몇 개의 예를 더 보자.

- **마들렌문화** (Madeleine文化) [역] 서유럽 구석기 시대 말기의 문화. 프랑스의 마들렌 유적을 대표로 하며, 발달된 골각기와 동굴에 그린 암

각화와 다채색 벽화가 특징이다. 마들렌 암음(巖陰), 라스코·알타미라 동굴 따위의 유적이 유명하다.

- **비데** (<프>bidet) 명 여성용 성기 세척기. 여성병 예방을 목적으로 프랑스에서 개발되었다.
- **불바르극** (<프>boulevard劇) 명[연] 프랑스의 번화가인 그랑 불바르의 극장에서 공연하던 연극. 스타급의 배우를 기용하여 밝고 즐거운 오락극을 많이 공연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상업적인 연극을 이르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 **트루베르** (<프>trouvère) 명[문] 중세 북부 프랑스의 음유 시인을 통틀어 이르는 말. 트루바두르보다 대중적이며 주로 연애시를 지어 이를 영창자(詠唱者)에게 노래하게 하였다.

'마들렌문화'의 '암음', '비데'의 '여성병', '불바르극'의 '오락극', '트루베르'의 '영창자' 등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13] 전문용어로 볼 수 있는 '암음', '비조화파' 외에도 일반어로 볼 수 있는 '여성병', '오락극', '영창자' 등도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뜻풀이는 표제어보다 쉽게 풀어주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이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능한 쉽게 하되 어려운 용어를 이용할 경우 최소한 이 단어에 대한 뜻풀이가 사전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자는 이용하는 사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순화어 제시의 문제

『표국』은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나 비규범적인 말, 외래어"에 대해 순

13) '암음'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합성어인 '암음유적'은 등재되어 있다.

화어를 제시하고 있다. 일부 프랑스어 차용어에도 순화어가 제시되어 있다. 외래어를 알기 쉬운 고유어로 순화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미 한국어에 잘 정착하여 언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이용되고 있는 낱말까지 순화어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레스토랑'의 경우가 그렇다.

• **레스트랑** (<프>restaurant) 명 서양식 음식점. '식당', '양식당'으로 순화.[14]

이와는 반대로 "예술이나 학문 따위를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취미 삼아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쓰이는 '딜레탕트'는 '애호가'로 순화어를 제시할 만한데 어떤 순화어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순화어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순화어로 제시된 낱말들이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은 것이다. 아래의 예들은 순화어가 표제어로 미등재되었거나 등재되었어도 관련된 의미가 결여된 경우이다.

• **데포르마시옹** (<프>déformation) 명[미] 회화나 조각에서, 대상이나 소재가 되는 자연물을 사실적으로 그리지 아니하고, 주관적으로 확대하거나 변형하여 표현하는 기법. '변형'으로 순화.
• **콜라주** (<프>collage) 명[미] 근대 미술에서, 화면에 종이·인쇄물·사진 따위를 오려 붙이고, 일부에 가필하여 작품을 만드는 일. 광고, 포스터 따위에 많이 쓴다. '붙이기'로 순화.
• **크로키** (<프>croquis) 명[미] 움직이는 동물이나 사람의 형태를 빠르게 그린 그림. '속사화'로 순화.
• **퓌리슴** (<프>purisme) 명[미] 제일 차 세계 대전 후 프랑스에서 오장

14) 인터넷 사전에서는 순화어 정보가 삭제되었다.

팡이 주창한 미술 운동. 입체파를 한층 순화(醇化)하여, 장식성을 제거한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에 의하여 회화·건축을 구성하려 하였다. '순수주의', '순수파'로 순화.

- **프로타주** (<프>frottage) 명[미] 나뭇조각이나 나뭇잎, 시멘트 바닥, 기타 요철이 있는 물체에 종이를 대고 색연필, 크레용, 숯 따위로 문질러 거기에 베껴지는 무늬나 효과 따위를 응용한 회화 기법. 에른스트가 1925년에 처음으로 시도하였고, 이후 초현실주의자들이 자주 썼다. '뜨기'로 순화.

'콜라주'의 순화어 '붙이기' '크로키'의 순화어 '속사화', '퓌리슴'의 순화어 '순수파', '프로타주'의 순화어 '뜨기' 등이 표제어로 미등재되어 있다.[15] '데포르마시옹'의 순화어 '변형'은 등재되어 있지만 미술 용어로 쓰이는 뜻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외래어에 대한 순화어를 제시하고 이 순화어를 적극 장려하고 싶다면 순화어들을 표제어로 배치하여 항목 기술을 이 순화어 표제어 아래에서 하고, 순화대상의 외래어는 표제어로 등재만 하고 참조 표시로 순화어를 지시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5. 분류 항목

『표국』은 약호를 사용하여 전문어를 표시하고 있다. 전문어는 개념에 따라 54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개', '고양이' '소' 등을 전문어로 볼 수 있는지와 같은 전문어와 일반어의 구별에 대한 일반적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프랑스어 차용어 관련 전문어 표시 붙이기의 일관

15) '퓌리슴'의 순화어로 제시된 '순수파'는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순화어 '순수주의'는 등재되어 있다.

성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먼저 디아뎀, 디아망, 디아파종의 예를 보자.

- **디아뎀**(<프>Diadéme)[16] 명[지리] 프랑스의 측지 위성. /…/
- **디아망**(<프>Diamant) 명[천] 프랑스의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 /…/
- **디아파종**(<프>Diapason) 명[천] 프랑스의 두 번째 과학 관측 및 측지 위성. /…/

프랑스의 인공위성 '디아뎀'과 '디아파종'이 각각 [지리]와 [천문]으로 다르게 분류되어 있다. 게다가 '인공위성' 항목을 찾아보면 이것은 [항공]으로 분류되어 있다. 같은 인공위성인데 서로 다르게 분류되어 있다.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인 '디아망'은 [천문]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로켓'에는 어떤 전문어 표시도 없다. 또 다른 예를 보자.

- **디바가시옹**(Divagations) 명[책] 1897년에 프랑스 상징파 시인 말라르메가 자신의 주요 산문 작품들을 편집하여 펴낸 책. /…/
- **르네** 명[책] 프랑스 작가 샤토브리앙(Chateaubriand, F. R.)의 소설. /…/
- **팡세**(<프>Pensées) 명[책]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이 지은 철학 책. /…/
- **페스트**[1](<프>La Peste) 명[문] 프랑스의 작가 카뮈가 지은 장편 소설. /…/

'디바가시옹'과 '르네', '팡세'는 [책]으로 '페스트'는 [문학]으로 분류되어 있다.[17] 또한 『표국』은 고유 명사는 언어명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책명인 '팡세'와 '페스트'에는 <프>라는 원어 표시를 하였다.

16) '왕관'을 뜻하는 프랑스어 Diadéme은 Diadème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17) 최신 인터넷 버전에서는 '디바가시옹', '르네', '페스트'는 [문학]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팡세'는 [책명]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말라르메의 저서인 '디바가시옹'과 샤토브리앙의 소설인 '르네'에는 원어 표시를 하지 않았다.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떤 책은 원어명을 밝히고 어떤 책은 원어명을 밝히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일관성 있는 기술을 위해서는 원칙을 세웠으면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위의 예들처럼 분류와 원어명 제시가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어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어떤 표시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 **장세니슴**(<프>Jansénisme) 명 네덜란드의 신학자 얀선이 창시한 교리. 아우구스티누스의 설을 받들어 은총, 자유 의지, 예정 구원설에 대한 엄격한 견해를 발표하여 17~18세기에 프랑스 교회에 큰 논쟁을 일으켰다. 프랑스의 포르루아얄파(Port Royal派) 등의 신봉을 얻었으나 1713년 로마 교황에 의하여 이단 선고를 받고 소멸하였다.[18]

"교황의 절대권에 대하여 교회의 독립 자치를 요구한, 프랑스 가톨릭교회의 주장"인 '갈리카니슴'은 [가톨릭]으로,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 칼뱅에게서 발단한 기독교 사상인 '칼뱅이슴'은 [기독교]로, 에스파냐의 신학자 몰리나가 주장한 학설인 '몰리니즘'은 [종교]로 분류되어 있다. 그렇다면 '장세니슴'도 [가톨릭]이나 또는 그 상위 개념인 [종교]로 분류되는 게 옳지 않을까. 표제어에 어떤 분류 표시도 없으면 이용자는 일반어로 간주하게 되는데 '장세니슴'을 일반어로 보기는 어렵다.

18) 뜻풀이에 사용된 '구원설', '포르루아얄파' 등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Ⅳ.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표국』에 등재된 프랑스어 차용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현재 이 사전에는 765개의 프랑스어 차용어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명사이다. 프랑스어 차용어 가운데는 국립국어연구원이 밝힌 외래어 기술 대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차용어들이 다수 등재되어 있다. '모기지', '에콜', '팜프파탈'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아직 등재되지 못한 차용어들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싣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모르모트', '에스칼로프', '클라레' 등과 같은 낱말들을 등재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를 대표하는 사전인 『표국』에 등재어로서의 지위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바르소비아나'처럼 프랑스어 차용어로 보기 힘든 낱말을 프랑스어 차용어라 하고, '니코틴'처럼 프랑스어 차용어인데도 영어 차용어로 처리하는 등 『표국』에는 차용어에 대한 출처 언어 정보가 잘못된 경우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라보엠', '레무르', '레종데타', '바캉스' 등에서와 같이 원어 표기가 잘 못된 사례들도 있었다.

뜻풀이와 관련하여서는 '리세', '마롱' 등과 같이 백과정보가 잘못되었거나 '테제베'처럼 상위어의 선택과 부가정보가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뜻풀이에 사용된 낱말들이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는, 달리 표현하면 순환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순화어로 제시된 낱말들이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는 것은 순화어 제시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순환성이 지켜져야 사전의 완전한 해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환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전문어 분류 표시와 관련해서는 분류의 원칙과 이 원칙의 일관성 있는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유명사에 대한 원어명 제시도 어떤 것은 제시하고 어떤 것은 제시하지 않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고유명사에 대해서는 원어명을 제시하지 않는 다는 원칙을 세웠다면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세운 원칙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 그 경우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사전은 내용의 정확성이 생명이다. 이용자들이 사전을 참조하는 것은 사전의 내용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그런데 사전의 내용이 틀리다면, 그것도 한 언어의 표준을 제공하는 사전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극로는 「조선어 사전 편찬에 대하여」(『한글』 창간호, 1932)에서 "표준사전은 다른 책과 달라 일부인의 일시적 독물이 아니고, 사람마다 늘 두고두고 보는 책이나, 우리의 쓰는 말과 글이 옳고 그른 것을 질정하는 최고의 재판관이다."라고 하였다.[19] 『표국』이 말과 글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언어 사전의 재판관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사전 내용의 기술에 더 많은 정확성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된 차용어 기술에 있어서는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사전 이용자들이 차용어에 대해서는 언어 사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언어적 직관이 없기 때문이다.

19) 이상규, 2008, 116쪽에서 재인용.

|참고문헌|

1. 자료

Grand dictionnaire Hachette Oxford, français-anglais anglais-français, Hachette-Oxford University Press, 2001.

Lexis, dictionnaire de la langue française, Larousse, 199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한국어대사전』, 2009.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2. 논저

김경희, 「한국어의 프랑스어 차용에 관한 고찰」, 『불어불문학연구』 제64집, 한국불어불문학회, 2005.

김영선, 『한국에 소개된 프랑스 문화와 프랑스어 어휘』, 도서출판 만남, 2000.

노명희, 「외래어의 수용과 품사적 변용」, 『국어학』 제63집, 국어학회, 2012.

박일환, 『미친 국어사전』, 뿌리와이파리, 2015.

송길룡 외,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구성」, 『한국사전학』 2호, 한국사전학회, 2003.

양만섭, 「영어의 차용어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연구』 제23호,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 2001.

이상규, 『둥지 밖의 언어』, 생각의 나무, 2008.

이재호, 『영한사전 비판』, 궁리, 2005.

장한업, 『어! 이것도 불어였나?』, 하우, 2004.

_____, 「외래어 '마담'의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프랑스어문교육』 제26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7.

전재연, 「한국어에 차용된 프랑스어 어휘의 분류와 사용 양상에 대하여」, 『프랑

스학연구』 제67집, 프랑스학회, 2014.
조재수, 「문제점이 많은 표준국어대사전」, 『새국어생활』, 제10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2000.
최혜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특징」, 『새국어생활』, 제10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2000.
한국불어불문학회, 『한국불어불문학회 50년사』, 2015.

<Abstract>

A Study on the description of French loanwords in the *Pyojun Korean Dictionary*

Ha, Young-dong

Formal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France began in 1886, when the France-Korea Treaty was signed. However, both countries had already previous contacts. In 1835, for the first time as a Western priest, Pierre-Philibert Maubant began his missionary work in Korea. In 1855, the St. Joseph Seminary was established in Jecheon Baron and the education of the French language began along with various Western sciences.

The various exchanges between both countries were inevitably accompanied by mutual linguistic contacts and traces of those remained in each language. A typical Korean word introduced into the French language is 'Won', the monetary unit of Korea. It is used as a masculine noun in French although the gender of the noun does not exist in Korean. Typical French words that were introduced into the Korean language include 'café', 'baguette', 'vacances', etc. And these words are used without distinction of gender and of number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the French language. These loanwords are widely

used in Korea and can be said to be foreign words well suited to the Korean language. It is natural to assign Korean word status to these foreign words and thus to register them in the Korean diction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scription on French loanwords registered in the *Pyojun Korean Dictionary*, compil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As far as the macrostructure is concerned, problems of the selection of French loanwords as headwords are discussed. As regards the microstructure, problems of the information on the original language, the definition, the principle of the circulation, the suggestion of a more appropriate word and the classification of the terminology are examined.

In this Dictionary, which contains 765 French loan entries, there are some borrowed words that should not be listed due to their rarenes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words that should be listed because of their usefulness but that were not registered. This study reveals that the source language information on some French words is wrong and some original words are misprinted. Besides, it also points out that the principle of circulation which stipulates that the words used in the definition should be listed in the entry is not observed and that the encyclopedic information about some French terms is wrong. Regarding the classification of the terminology, it emphasizes the need for consistent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classification.

Key words : loanword, foreign word, Korean, French, the Pyojun Korean Dictionary.

하영동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전자우편: ydha@jnu.ac.kr

이 논문은 2019년 8월 30일 투고되어 2019년 10월 9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9년 10월 16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